

중심 측두엽에서 뽀족파가 나오는 양성 롤란딕 간질 (BREC) Benign Rolandic Epilepsy with Centrotemporal Spikes (BREC)

중심 측두엽에서 뽀족파가 나오는 양성 롤란딕 간질(BREC)이란 무엇인가?

중심 측두엽에서 뽀족파가 나오는 양성 소아 간질(BCECT)이라고도 불리며 아동기에 가장 흔한 간질 증후군의 하나이다. 발작이 2~13 세 (대개 5~10 세)에 시작되고, 십대 중반까지 거의 모든 어린이가 발작을 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정상적 발달을 하고, 부모 형제 중 BCECT 를 앓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발작은 일반적으로 밤에 일어나고 혀, 입술, 뺨이나 얼굴의 지각이상(핀이나 바늘로 찌르는 느낌)과 함께 시작된다. 어린이는 대개 발작이 팔다리로 퍼지거나 이차로 전신 강직 간대 발작(대발작)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의식이 있다. 대개 발작 시간이 짧아 수 분 미만 지속된다. 발성 곤란과 더불어 신체의 영향을 받는 쪽의 마비와 무감각이 발작 후에 생길 수도 있고 아이는 다시 잠들 것이다.

BCECT 가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는 수면 중에만 발작을 하고, 20%까지의 어린이는 단 한번의 발작을 한다. 소수의 어린이가 낮에도 발작을 하거나 빈번한 발작을 한다.

BCECT 는 어떻게 진단되나?

상세한 병력을 보고 건강 진단을 한 뒤에 의사는 일반적으로 BCECT 인지 크게 의심스러우면 뇌파검사를 시킬 것이다. 뇌파 검사는 수면 중 훨씬 명확한 특징적 파를 보여줄 것이다. 진단에 의문이 없으면 뇌영상 (MRI 나 CT)은 필요하지 않다.

중심 측두엽에서 뽀족파가 나오는 양성 롤란딕 간질의 치료법은 무엇인가?

모든 어린이와 가족은 발작 예방조치 (비씨 간질협회의 응급처치 포스터나 의사나 간호사가 준 유인물을 보라)를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어린이가 몇몇의 짧은 발작이나 수면 중에만 짧은 발작을 하기 때문에 의사는 항경련제 복용을 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경련제 복용은 발작이 빈번하고, 아이나 가족에게 고통이 되거나 낮에 일어나면 시작될 수 있다. 가족마다 다르기에 항경련제 복용에 대한 결정은 가족과 의사가 상의한 뒤에 내려야 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발작이 없어질까?

대개 BCECT 가 있는 모든 아이들은 청소년기까지 발작이 없어진다. 뇌파 검사가 정상이 되기 전에 아이의 발작 경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유전이라면 내 다른 아이들도 간질을 앓을 위험이 있나?

연구에 따르면 BCECT 가 있는 어린이 남매 중 15%까지 비슷한 발작을 하고, 20%까지 뇌파검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발작이 없는 아이가 뇌파검사에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남매들이 뇌파검사를 받도록 권하지는 않는다.

2009 년 5 월 회람 승인

비씨 간질협회에 가입하셔서 회원으로서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2500 – 900 West 8th Avenue, Vancouver, BC V5Z 1E5

전화: (604) 875-6704 Fax: (604) 875-0617 info@bcepilepsy.com www.bcepilepsy.com